



2012 사업보고서

Annual Report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 NGO 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NGO, 평화NGO, 남북통합NGO입니다.



새로운 도서관을 보고 즐거워하는
중국연변 화룡시 신흥 조선족 소학교 학생들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북한이 어디야? 아프리카 보다 멀어?”

당신은 어디가 더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을 돕자는 이야기가 뜬금없게 들리던 시절인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쌀 한톨이 없어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6대 종단과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시작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협의지위 NGO 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 NGO, 평화NGO, 남북통합NGO입니다.

인도적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감사의 글

2012년도 사업 보고서를 발간하며

4억 163만원. 지난 2012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북한에 지원한 물자 총액으로 최종 집계된 내역입니다. 일반구호와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취약계층)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 사업 중 보건의료와 농업·축산 분야에서 단 한 건의 물자도 북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대북지원 규모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된 첫 해인 1996년을 제외하면은 최저치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 규모는 15년 전으로 돌아갔으며 지난 2008년에 비해서는 1/25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북지원이 줄어들었다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한 해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 “헌 교과서, 날개를 달다!”라는 모토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헌 교과서 수거 사업”이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까지 지역을 확대해서 진행되었습니다. 2월과 7월, 11월, 12월에 행해지는 교과서 수거를 위해 사무처에서는 서울시 기준으로 약 1,300여개에 이르는 개별 학교에 대한 사전 전화, 확인 전화 그리고 교과서 수거 등으로 이어지는 팍 짜인 일정을 소화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 사무처 실무자들은 물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중국 조선족 학교에 도서관을 짓는 한편 북한의 어린이 급식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와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북지원 국제회의도 2012년 11월 진행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국제회의를 이번엔 태국 방콕에서 개최했습니다.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및 국제기구들이 보다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WFP, UNICEF, UNDP, UN OCHA(인도지원조정사무국) 등의 유엔 기구들과 ECHO(EU 인도지원사무국), 미국 및 프랑스 대사관,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NGO와 연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국제회의의 성과를 이어받아 올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과 주제별 워킹그룹 등의 소규모 회의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해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회장 단체를 맡았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이 북민협의 회장 단체를 맡은 것은 지난 2004~2005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회장 단체를 맡은 이후 북민협은 북한에 대한 수해지원과 같은 긴급구호 사업과 함께 정책캠페인의 일환으로 대북지원 사회적 합의 모색에 상당한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협약』으로, 북민협은 올해 정당과 정부, 종교계, 제반 사회단체 등이 이 협약안에 서명하고 위원회 형태의 민관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S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5년이 끝나고 이제 박근혜 정부 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제재 조치 등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비야흐로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몇 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어를 많이 썼습니다. 정치군사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인 인도적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위기 상황이 된 것은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이 거의 중단돼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인도적 대북 지원을 평화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올해 북민협 회장 단체를 1년 더 하게 됩니다. 작은 수준의 대북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큰 담론도 놓치지 않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 후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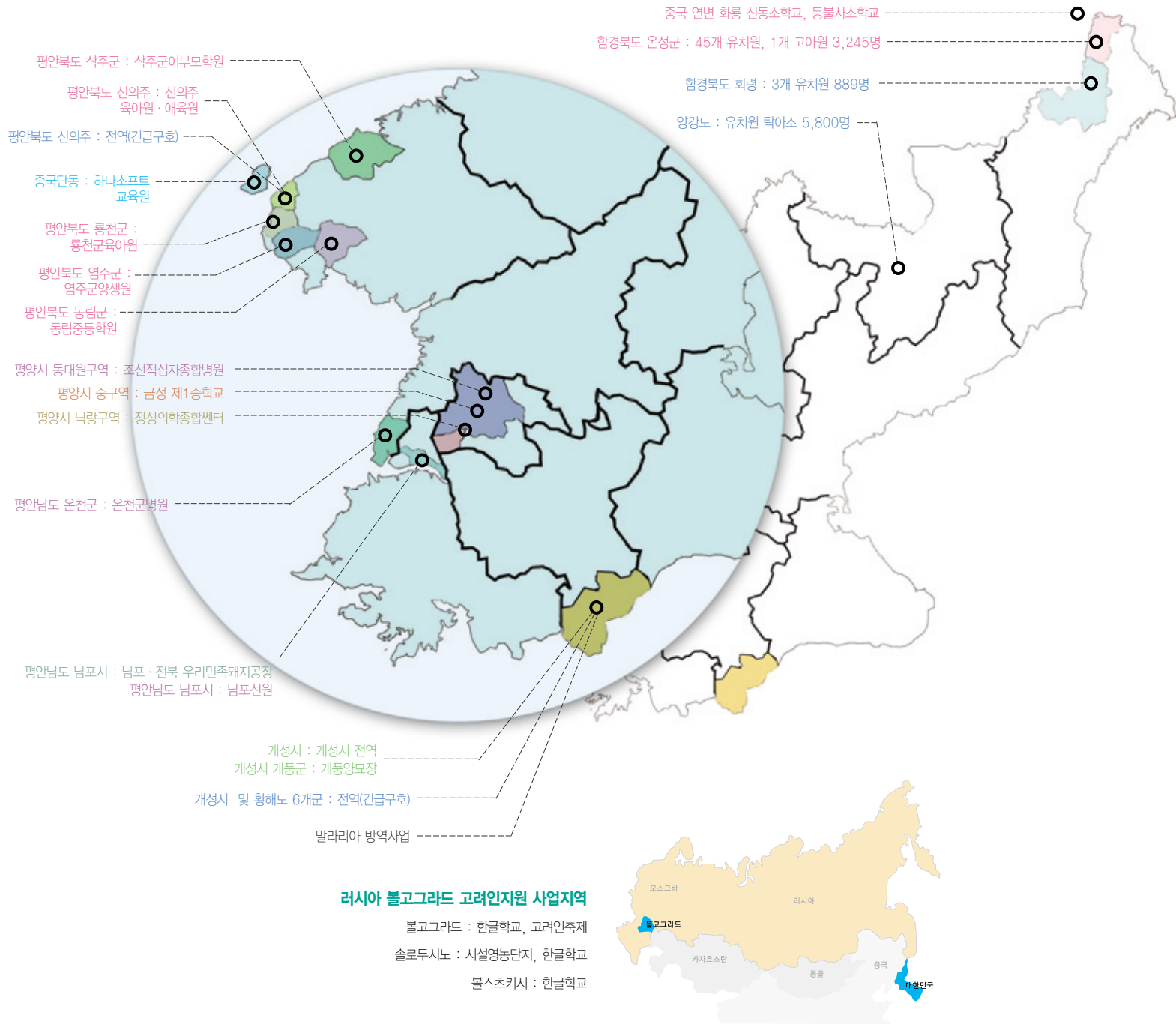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나눔이 가는 곳

- 농촌현대화 사업 ● 축산협력 사업 ● 교육지원 사업 ● 말라리아 방역사업 ● 제약공장 지원사업
- 병원현대화사업 ● 어린이급식사업 ● IT교육사업 ● 긴급구호사업



북한 방문 현황

연도	방문횟수(회)	연인원(명)	방문지역별 (횟수/연인원)					
			평양	남포	신의주(룡천)	개성	금강산	기타
1998	2	4	1/2		1/2			
1999	8	29	2/13	4/10	2/6			
2000	19	79	8/48	8/20	3/11			
2001	20	106	14/85	5/17	1/4			
2002	24	212	20/203	3/7				1/2(자강도 만포)
2003	21	363	19/356	2/7				
2004	26	168	18/136	4/15	1/7	1/3	2/7	
2005	62	972	37/811	6/13	2/18	17/130		
2006	72	704	60/647		2/2	8/48	2/7	
2007	65	2,962	38/471		3/3	24/2,488		
2008	49	618	13/217	2/12	4/4	22/377	1/1	7/7(함북 온성군)
2009	25	84	9/59		4/4	2/11		10/10(함북 온성군)
2010	40	83	2/21		1/4	5/26		32/32(온성/회령)
2011	38	65	2/6			8/31		28/28(함북 온성군)
2012	27	30				3/6		24/24(평안도 해산/함북 온성)
합계	498	6,475	243/3,075	34/101	24/65	90/3,120	5/15	102/103

2007년까지는 한국국적 방문자 집계임. 2008년부터 북한 어린이 지원 재중동포들의 신의주, 룡천, 함북 온성 등에 방문한 횟수 포함함. 양강도 해산과 함북 온성 방문을 제외하면 2012년 순수 한국국적 방문은 3회 6명임.

물자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취약계층)	계
1996	171,500	-	-	-	171,500
1997	4,612,180	-	492,000	-	5,104,180
1998	330,000	-	420,000	-	750,000
1999	2,290,000	376,500	135,000	-	2,801,500
2000	6,382,900	202,190	1,871,270	-	8,456,360
2001	5,344,390	556,000	2,823,230	220,000	8,943,620
2002	2,108,750	1,090,530	3,928,850	165,710	7,293,840
2003	2,891,390	1,952,370	1,209,710	1,302,180	7,355,650
2004	1,007,250	4,726,480	2,074,080	78,125	7,885,935
2005	1,640,380	1,397,730	3,390,790	10,476	6,439,376
2006	828,920	1,499,140	5,264,130	5,180	7,597,370
2007	3,076,948	1,090,922	3,068,778	44,096	7,280,744
2008	4,181,110	3,875,382	2,427,461	67,044	10,550,997
2009	4,163,576	229,980	3,150,606	114,590	7,658,752
2010	666,312	114,917	528,114	212,403	1,521,746
2011	47,000	1,120,368	-	234,491	1,401,859
2012	30,453			371,177	401,630
합계	39,773,059	17,856,009	30,784,019	2,825,472	91,615,059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012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든 시간입니다.



- 0103** 평화나눔센터 2012년 1차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주제: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 발표: 김근식 교수(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형중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토론: 정영철 교수(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조동호 교수(이화여대 북한학과) 이기동 박사(국가안전보장연구소 책임연구원)
- 0111** 동학민족통일회 성금 전달
- 0116**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202**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정기총회
 - 신임 회장단제로 선출됨
- 0207**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208** 2012년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프레스센터)
- 0210~16** 한민족 어린이 지원기금 마련 학교교사 수거 활동
 - 서울시 초등학교 316개 참여
- 0221** 2011년 사업보고서 (Annual Report) 발간
- 0222** 경기도지역 학교교사 수거 관련 협약식 개최(경기도 교육청)
- 0222** 제69차 공동대표회의



- 0320** 2012년도 제1차 대북지원인관정책협의회 (민관협) 개최 (달개비)
- 0322** UN 대표단 간담회 (외교통상부 외빈접견실)
 - 북한 식량 상황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의견 교환



- 0406**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417**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 0425** 사할린 희망캠페인단 활동 선포식 (프레스센터)



- 0509** 경기도 남북교류 10년 평가 국제회의 (킨텍스 제2전시장)
- 0523** <북민협> 5.24조치 2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발표
- 0524** 5.24조치 2년,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회의 (국회)
- 0529** 남산국제유치원 성금전달
- 0530~0603** BaB 캠페인 후원자 2012년도 중국 현지 방문 프로그램 (39명 방문)



- 060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601** 프랑스 평양협력사무소장 방문
- 0608** <북민협> 상반기 워크숍 (도봉숲속마을)
 - 회원단체 임원 및 활동가 70여 명 참석
- 0618**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 초청 간담회
- 0621** 제53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주제: '북한의 최근 식량 사정'과 식량지원 방식의 개선 방안'
 - 발표: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토론: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 / 임형준 WFP 한국사무소장
- 0621** 광주·전남본부 정책포럼
 - 주제: 2013년 체제와 민간 통일 운동
 - 발표: 김연철 인제대 교수
- 0628~30** 광주·전남 지역 통일·역사 기행
 - 대상: 광주·전남 지역 중학생 40여명
 - 장소: 강화도, 파주 DMZ 일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 120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213**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의 밤 '이팔청춘 우리민족, 더불어 통하라' 개최 (서강대 곤자간벤션)
 - 발표: 김근식 교수(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형중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토론: 정영철 교수(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조동호 교수(이화여대 북한학과) 이기동 박사(국가안전보장연구소 책임연구원)
- 121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224~28** 한민족 어린이 지원기금 마련 학교교사 수거 활동
 - 서울시 122개 중학교 / 경기도 150개 중학교 참여
- 122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226**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227** 중국 조선족 학교 한글교사 12,799명 지원 (부산·상해·연길)



- 1105~23** 한민족 어린이 지원기금 마련 학교교사 수거 활동
 - 서울시 68개 고등학교 / 경기도 111개 고등학교 참여
- 1106**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10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114** 국토 인프라 구축 정책제안 모임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제: 한반도 도약의 블루오션, 북방경제 : 국토 인프라 구축 실 천과제 제안
 - 공동주최: 서울대 통일한반도인프라센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111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116**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127~29** 2012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 장소: 태국 방콕 수곡호텔
 - 주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경기도 /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1129**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005** <북민협> 1차 대북 수해지원 참여 (개성육로)
 - 지원물자 : 밀가루 500톤 (2억6천만원 상당)
 - 인도대표단 개성방문 : 11명
- 100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011** 중국 화흥시 신동소학교 '네모상자' 도서실 개관식
- 101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023** 제70차 공동대표회의
- 1025** <북민협> 2차 대북 수해지원 참여 (개성육로)
 - 지원물자: 기초의약품 및 의류(여성리유 및 아동용 내복)
 - 인도대표단 개성방문 : 6명
- 1030** 광주·전남본부 정책포럼
 - 주제 : 차기 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
 - 발표 : 윤영덕 교수 (조선대)

- 0901** 중국 조선족 학교 한글 도서 지원을 위한 도서 모으기 캠페인 전개 / 경기도 5개 학교 대상
- 0906**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91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918** 정책토론회 개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대북지원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 발표1: 스마트 대북지원정책으로의 전환과 추진전략(이종우 평화나눔센터 소장)
 - 발표2: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체계 구축과 추진 방안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지정 토론: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김정우 새누리당 의원, 강영식 사무총장
- 092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92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927**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대북지원 촉구 국회 결의안' (정의화 의원발의) 통과



- 0803**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81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814** 서울시 교육청 기금 전달식 (서울시 교육청)
- 081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816** 제54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주제: 대북지원 민관협력의 평가와 발전방안
 - 발표: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
 - 토론: 김정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장, 윤환철 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
- 0820~31** 한민족 어린이 지원기금 마련 학교교사 수거 활동
 - 경기도 60개 초등학교 참여
- 0824** 수해지원 협의회 북민협 대표단 개성방문 (4명)
- 0828** '북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평화와 나눔의 한가위' 선포 기자회견 개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070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71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711** UN 보고서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in DPRK' 번역본 발간
- 0717~26** 한민족 어린이 지원기금 마련 학교교사 수거 활동
 - 서울시 272개 초등학교 / 경기도 770개 초등학교 참여



- 0727** 평화콘서트 공동 주최 (구세군 아트홀)

대외협력
대북지원
사업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향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한 목소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2년 2월 56개 대북지원 민간 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회장 단체에 선출되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민협의 회원단체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연대하여 2회에 걸친 대북 수해지원과 함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과 법제화 추진 등 다양하고 활발한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단체 선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게 있어 2012년은 여러모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한 이래 처음으로 대표적인 사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농업·축산'과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유일한 해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5·24조치'가 유효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2년 초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회장 단체를 맡았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북민협 회장 단체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북민협은 현재 국내 56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로,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초 51개에 그쳤던 북민협 회원 단체는 2013년 1월 현재 56개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북민협의 회장 단체로 선출된 이후 북민협은 북한에 대한 긴급 수해지원과 같은 긴급구호사업과 함께 정책캠페인의 일환으로 대북지원 사회적 합의 모색에 상당한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북 지원 규모의 감소는 그동안 남쪽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받았던 북한의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 왔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후퇴하게 된 것은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이 거의 중단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긴급수해지원, 밀가루 500톤, 아동용 내복/의약품 등 전달

막바지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 28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필두로 북민협의 회원단체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표들이 '2012 북한 긴급 수해지원 및 북한 어린이돕기 범국민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국민 모금 캠페인이 전개되었고, 한 달 후인 10월 5일 1차로 밀가루 500톤을, 그리고 같은 달 25일 2차로 어린이 내복과 의약품 등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습니다.



북한 긴급 수해지원 및 북한 어린이돕기 범국민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북한 긴급 수해지원 밀가루 500톤 개성 육로 지원

북민협은 이러한 대북지원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였습니다. 북민협은 최근 대북지원이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인도지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가기 위해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 이에 대한 갈등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

북민협은 정책위원회에 10명의 북한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2012년 7~8월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대북지원 사회적 합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8월 말 "대북지원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북민협은 2012년 11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협약"을 작성했습니다. △ 인도적 명령 우선 △ 중립성 △ 독립성 △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등 4가지 지를 인도적 대북지원으로 원칙으로 내세운 사회협약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첫째,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정기성과 정량성의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둘째,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등 인도적 상황을 고려

- 하여 식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제도화한다.
- 셋째,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 넷째, 인도적 대북지원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 다섯째, 각 정당 및 시민사회,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사회협약 내용은 어쩌면 현 단계에서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도 일 것입니다. 북민협은 이 사회협약에 대한 각계각층의 서명을 받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를 전달하여,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러한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하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운동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대북지원을 통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긴장 상태의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를 다시 싹트게 하는 일은 한국사회 전반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여 실종된 인도주의 원칙을 되살려 내기를 기대합니다.

헌교과서 수거사업

헌 교과서, 날개를 달다

2012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참여하는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 헌 교과서 수거에는 1,271개 초등학교, 260개 중학교, 176개 고등학교가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북한 어린이 급식지원,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실 지원, 러시아 고려인 한글학교를 돕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원에 힘입어 경기지역에 1천여 개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셨습니다. 사업 첫 해임을 감안할 때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기금 전달

2012년 8월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대영 부교육감 및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4차례 수거를 통해 만들어진 1억 4천 여 만원의 성금을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써달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기금을 전달하면서 이대영 부교육감은 “수거를 진행하면서 참여 학생들의 기부뿐만 아니라 나눔과 배려를 배울 수 있었고, 또한 자원의 선순환과 환경보호도 실천할 수 있었다”고 지난 1년의 사업을 평가하십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더욱 소중한 곳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와 나눔의 실천

서울·경기지역에서 진행된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와 나눔 캠페인입니다. 사업초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회를 거듭할수록 학생회 및 봉사동아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교사·학생 간의 수직적 방식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나 성적 이외에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현장에서의 봉사, 기부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모은 책임 어려운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의 민족정체성과 전통 등을 살리고 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수원율현중학교 이은숙 교장선생님



수원율현중학교 헌교과서 수거모습

서 교사·학생이 서로 힘을 합치는 수평적인 방식으로 그 형태가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환일고등학교 김용선 학생회장은 “학내에서 학생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잘 없는 편인데, 이 사업은 전교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각자 배운 책을 직접 기부하는데다가 해외 한민족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취지이기에 학생회 차원에서 동참했다”고 전합니다. 용인홍천고등학교 봉사동아리 박진섭 단장은 “학교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봉사동아리가 직접 선후배, 친구들에게 알리고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남쪽의 학생들이 북쪽의 친구들과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 친구들에게 희망을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력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2012년 경기지역으로 사업지역이 확대되어 서울·경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를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않았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일선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지역 수거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경기교육봉사단체협의회 회원님들의 열성적인 지원과 봉사는 넓은 경기지역의 많은 학교들과 소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경기지역의 수거업체들도 한민족 어린이들을 돕는 사업취지에 공감하고 힘을 함께 모아주신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덥고 추운 학교 현장에서

곳을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감사할 분은 직접 수거에 참여해주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입니다. 바쁜 학기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해외 한민족 친구들을 위해 선뜻 배운 책을 꺼내놓은 학생들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헌 교과서를 통해 만들어진 기금의 용도는 교육청, 교총, 그리고 각 학교 선생님들께 이메일 또는 소식지 형태로 월 2차례 이상 알려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진행에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통해 학교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부해주신 헌 교과서가 날개를 달아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에게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사업추진 내용

시기	업무
2월 10~6일	서울시 초등학교 316개교 수거
2월 22일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경기교육봉사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7월 17~26일	서울시 초등학교 272개교 수거 경기도 초등학교 683개교 수거
8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우리민족에 기금전달
11월 5~23일	서울시 고등학교 67개교 수거 경기도 고등학교 109개교 수거
12월 24~28일	서울시 중학교 106개교 수거 경기도 중학교 154개교 수거



경기도 교육청, 경기교총, 경기교육봉사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외 관계자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기금 전달식



수원중초등학교 헌교과서 수거 모습

중국조선족
소학교
지원사업

현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돕기

중국 조선족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날개를 달다

조선족 학교교육의 미래를 여는 학교 도서관

중국의 조선족 학교는 재중동포 학생들이 다니는 민족학교로 조선어(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의 조선족 학교는 1,500여개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250여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산업화로 농촌지역 학교가 감소했고 도시지역 주민도 한국 중국 내 다른 도시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다 보니 조선족 학생 수도 줄게 된 것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든 학교 교육여건

도 점점 어려워지고 심지어 학교들이 통폐합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한족학교에 보내는 조선족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어(중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족학교가 교육여건도 훨씬 좋다보니 조선족 학교보다 한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선족 학교교육의 앞날이 불투명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학교는 조선족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크나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학교 도서관 설치 지원사업은 위기에 처한 중국 조선족 학교를 독서교

육으로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기에 독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도 독서는 꼭 필요합니다.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조선어와 한어를 모두 잘하는 학생을 키워내는 학교, 도서관 활용과 독서교육을 잘하는 학교, 그래서 조선족 학부모들 뿐 아니라 한족 학부모도 보내고 싶은 학교로 바꾸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동소학교 도서관, 문을 열다

지난 10월 11일 도서관 지원사업의 첫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변자치주 화룡시의 유일한 조선족 소학교(초등학교)인 신동소학교에 도서관이 생긴것입니다. 신동소학교는 개교한지 90년이 넘는 학교로, 대부분의 조선족 학교들이 그렇듯이 독립운동의 뜻을 품은 민족의 선각자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2012년 8월부터 시작한 3개월간의 내부공사와 서가에 책 진열을 마친 후 드디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문을 열었습니다. 입주식날 새롭게 꾸며진 도서관을 처음 본 학생들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도서관은 전체 규모 130㎡(약40평)로 교실 2개를 터서 만들었고 서가에는 2만여권의 도서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아이들이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꾸미고자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다락방과 편안한 소파와 평상, 뽕글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온돌



교장사업을 하면서 아주 소박하면서도 절실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신동학교 어린이들에게 아늑한 독서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저의 이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한국의 지원으로 <네모상자>라는 예쁜 도서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모상자>라는 값진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아낌없는 정성을 쏟아주신 한국 후원자분들의 마음에 힘입어 우리 학교 전체 사생들은 도서관을 더 많이 애용하고 더 멀리 내다보고 더 크게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 중국 길림성 화룡시 신동소학교 교장 려승월



네모상자 도서관 전경

방, 토론도 하고 모둠과제나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소모임방 그리고 언제나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상담실을 도서관 안에 함께 꾸렸습니다. 학생들은 이들 공간을 보물창고, 알콩달콩 이야기방, 꿈꾸는 다락방, 비밀의 방으로 이름지어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신동소학교에 도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5평 정도의 공간에 오래된 책이 뽁뽁하게 꽂혀있는 낡은 서가들이 줄지어 있는 창고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하루 한 두명 정도가 책을 빌려가는 곳이었었습니다.

한글도서를 보내자

연변에서 한글로 된 책을 출판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한글도서 구매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한글로 된 책이 귀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글도서를 보내서 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엔 집집마다 두 세번 읽고 보관만 하는 책들이 많은데 이 책들을 모아 동화책, 과학책, 문학책 위주로 선별하여 약 3,000권의 책을 신동소학교 도서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좋은 도서관에는 좋은 선생님이 있다

좋은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한 내용은 경험많은 한국의 학교 도서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거나 조선족 학교 사서교사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도

서관 운영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설치, 한글도서 전달과 함께 도서관 사서교육, 독서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선족 학교 도서관의 이름 : <네모상자>

조선족학교에 설치하는 도서관 이름은 <네모상자>입니다. 조선족 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학교 도서관의 의미와 취지가 담겨있는 이름을 짓기위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의논 끝에 <네모상자>로 정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상상하라
자유롭게
네모난 책들이 담긴 보물상자 도서관에서!!

신동소학교가 1호 <네모상자>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매년 2개 학교를 선정하여 도서관 설치를 지원합니다.

2호 <네모상자>도서관 룡정시 북안소학교 진행 결정

2013년 1월 15일 룡정시 교육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를 마치고 시공단계에 있습니다. 4월이면 북안소학교 아이들에게도 도서관이 생길 예정입니다.



옛 도서관 서가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도서관 서가



도서관 설계회의 모습

러시아
고려인
지원사업

볼고그라드 고려인동포의 자립화와 중앙아시아 동포지원사업의 도모

2000년 볼고그라드 고려인동포 기초생활 긴급지원과 의료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고려인 동포지원 사업은 2012년을 맞이하여 중앙아시아 동포협력사업을 추진하며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볼고그라드 고려인 지원사업은 그동안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업, 시설농업 지원사업, 다민족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고려인동포사회가 현지단체와 한글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교류·협력지원을 통해 현지 단체가 자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동포사회와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고려인동포 협력사업의 영역과 활동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새 출발 “볼고그라드 한·러교류협회” 발족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II BK)을 “볼고그라드 한·러교류협회”로 발족하여 한글학교 운영, 시설 영농 기술 전수, 각종 문화 활동을 통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협회 방문 간담회

한 민족 정체성 회복 사업과 동포사회 연대활동 등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들을 동포사회가 자립적으로 운영하며 한국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는 고려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볼고그라드 한·러교류협회의 자립적 활동을 지원하고 교류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민족정체성회복을 위한 한글·문화교실 운영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말과 문화를 거의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에게는 민족 정체성 회복 및 우리말과 문화를 체득하고 현지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글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한국어 초급, 중급과정의 우리말과 사물놀이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모국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대학생들의 볼고그라드 현지 봉사활동을 통하여 고려인동포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글과 음악, 미술, 태권도, 시설농장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여 청년세대의 교류 및 상호이해 증진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볼고그라드 현지 청년모임인 <미리내>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등 문화교류사업, 우리문화 소개 및 홍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러교류협회 발족식



고려인학생 장학금 전달

비닐하우스 농장 운영을 통한 시설 농업 기술교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고려인들에게 현대화된 비닐하우스 시설 영농 기술을 전수하여 재정착을 위한 경제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레닌스키군에 비닐하우스 농장을 조성하여 시설농업 체험 및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 소련 시절 농업분야에서 명성을 날리던 고려인들의 역사를 되살리고 겨울이 길어 과채류 값이 비싼 현실에 맞추어 토마토, 오이 등의 시설농업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을 볼고그라드 현지에 파견하여 고려인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20명의 고려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시설농업 이

론 교육 및 현장 실습 등의 농업연수를 진행하였으며 현지 농장에서는 토마토 등을 생산하며 시설영농의 경험과 자립기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동포 지원 사업 모색

볼고그라드 고려인동포 지원활동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서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한국과의 교류협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의 동포사회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2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여 동포들과 동포단체,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교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지의 요구에 맞는 가능한 사업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볼스키 농장 시설농사(온실) 재배기술 교육

국제협력
사업

2012 대북지원 국제회의

국제연대 속에서 대북지원의
큰 틀을 그린다

〈2012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2012년 11월 27-2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 주최한 네 번째 연례 회의로, 1999, 2000, 2001, 2005년 진행된 대북지원 국제 NGO 회의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논의를 NGO 이외에도 국제기구, 정부기구, 관련 전문가로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 해 서울에서 개최됐던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대북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넓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회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지원 기구는 평양 상주기구와 비상주기구, 양자기구와 다자기구, 국제기구와 남한기구 등, 그 성격과 구조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기관들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조정을 강화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2 회의는 기구 간 조정과 협력이라는 중대 과제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가 중요했고, 이에 따라 개최지를 평양 및 국제기구들의 참여가 용이한 태국 방콕으로 회의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각 세션의 지정토론자를 없애고 분과 회의를 개설하는 등, 회의 참가자들 사이에 좀 더 자유롭고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회의 형식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WFP, UNICEF, UNDP,

UNOCHA(인도조정사무국) 등 UN 기구들과 ECHO(EU 인도지원사무국), 미국 및 프랑스 대사관 등 양자기구, 그리고 다양한 국내의 NGO와 연구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2012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1)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기구별 활동 현황, 2) 대북지원에서의 국제협력 사례와 교훈, 3) 북한 주민의 역량강화 방안 모색, 4) 대북지원사업의 도전과 과제 - 보다 나은 대북지원 사업을 위하여, 5) 도너 관계 강화 및 후원자 조직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화두였던 기구 간 협력에 관해 참가자들은 연례 회의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한 평양 상주기구와 비상주기구, 그리고 각 국에 흩어져 있는 대북지원기구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평양주재 UN조정관인 제롬 소바쥐(Jerome Sauvage)는 UN이 구축한 웹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국에서 참석한 NGO들은 평양상주 UN 직원들의 서울 방문 시, 한국 NGO들과의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더불어 남한 대북지원단체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여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표 중인 제롬소바쥐 UN 평양상주기구 조정관(당시)



2012 국제회의의 기념사진 촬영

지난 4~5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탓에 남한 NGO의 대북지원사업은 참 어렵게 진행됐습니다. UN기구들과 국제 NGO의 사정도 비슷해서 후원자들의 지원 피로 누적, 호의적이지 않은 국제 정치 상황이 이들의 사업 수행에 큰 장애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매년 개최된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통해 대북지원 주체들 간의 국제연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타 단체의 사업과 여러 어려움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향후 어떤 부분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을지가 훨씬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어떻게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들의 한결같은 바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서로간의 연대는 개별 기관의 역량의 합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비롯해, 대북지원에서의 국제연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은 그간 회의에서 논의됐던 일상적 소통 기제를 구축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원분야별 워킹그룹 미팅을 개최하여 향후 대북지원사업을 계획하며,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면 UN기구가 내년 회의에도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북한 상주기구와 비상주기구와의 협력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임무가 제 후임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Jerome Sauvage(전 UN 평양상주기구 조정관)

2012 대북지원 국제회의 프로그램

날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의 대북지원사업 - 식량 안보 ○ UNICEF의 대북지원사업 - 영양 및 식수/위생 ○ EUPS 3/Concern Worldwide의 대북지원사업 ○ 미국친우봉사회(AFSC)의 대북지원사업 ○ 한국 NGO의 대북지원 사업)
28일(수)	<p>〈전체회의 1〉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기구별 활동 현황</p> <hr/> <p>〈전체회의 2〉 대북지원에서의 국제협력 사례와 교훈</p> <hr/> <p>〈전체회의 3〉 북한 주민의 역량 강화 방안 모색</p>
29일(목)	<p>〈분과회의〉</p> <hr/> <p>〈전체회의 4〉 종합토론 및 폐회</p>

정책연구
사업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에 대한 공론 형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평화나눔센터는 인도주의·남북통합·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시민사회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매 시기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포럼 및 토론회

2012년 평화나눔센터는 정책포럼과 정책토론회, 그리고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초에 발표되는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분석 토론회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대북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의 식량 지원 정책과 민관협력의 주제를 2차례의 정책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포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북지원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서울대 한반도인프라센터와 공동으로 국토인프라구축 정책을 제안하는 특별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사업

2012년에는 두 가지의 연구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북한의 재해방지 및 한반도 재난안전망 구축 방안”(통일부 공모) 연구 사업에 참여했으며 통일연구원과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방안” 연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연대활동

2010년 시작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의 『북한 개발지원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은 2012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기획과 운영에 참가하면서 북한 개발지원에 대한 전문가 양성 교육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눔센터는 또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평화활동가대회에도 참여했습니다.

평화나눔센터는 현재의 남북 대결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책포럼 및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북지원 사업의 내실화와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각 분야별로 대북지원 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정책포럼 및 토론회 추진 현황

항목	일시	일시
제23차 정책토론회	1/3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과 정세 전망
제53회 정책포럼	6/21	북한 최근 식량 사정과 정부 식량 지원방식의 개선 방안
제54회 정책포럼	8/16	대북지원 민관협력체계의 평가와 발전 방안
제24차 정책토론회	9/18	대북지원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특별 토론회	11/14	한반도 도약의 블루오션, 북방경제 - 국토인프라구축 정책 제안
광주 3회 정책포럼	6/21	2013년 체제와 민간 통일운동
광주 4회 정책포럼	10/30	차기 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나눔은 계속됩니다

북녘어린이의 아픔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가 2012년 9월부터 한달간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10개 시도 7,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영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가운데 28%가 영양실조 상태로 발육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은 30%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북녘의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나눔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BaB이 희망이다”는 2012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녘의 어린이들을 돕고자 2010년부터 BaB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유치원 어린이 3,200여명에게 매일 먹을수 있는 빵과 콩우유를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추운 겨울

을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나기를 바라면서 지난 가을에는 겨울용 옷과 의약품도 지원하였습니다. 또 2012년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양강도 지역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 5,800여명에 대해서도 매달 국수 20톤과 생필품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BaB 캠페인을 통한 정성이 약 9천여명의 북녘어린이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후원자들이 마련해주신 급식물자와 생필품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를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다

BaB 캠페인이 지원하는 북한 유치원, 탁아소에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을 구하고자 유치원에 다닐 수 없던 아이들의 수가 이제는 유치원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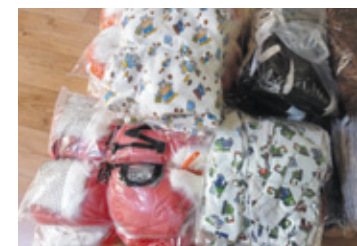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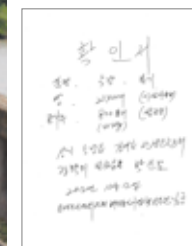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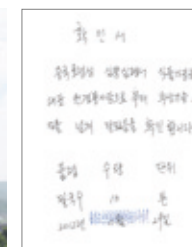
2012 북한신년공동사설 분석과 정세토론회



국토인프라구축 토론회



중국 도문-북한 온성 물자전달 모습



물자전달 인수증과 지원 물자

광주전남
우리민족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멈출수 없습니다

2012년은 대북지원단체들에게 있어 매우 힘든 시기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인도지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남북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해외동포 지원사업을 지속해 왔고 통일인재양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위기에 처한 조선족 민족학교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다

우리민족은 조선족 아이들의 결손을 증대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 해결에 중점을 두고, 2011년 연변주 도문시 제2소학교에 방과후 교실인 '행복의 집'을 조성하여 결손 가정 아이들의 쉼터이자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는 도문 제5중학교에 심리상담실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심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족 민족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통해 방과후 교육과 심리상담 기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전남 청소년 DMZ 통일캠프

2010년부터 시작한 통일캠프가 3년째가 되면서 광주지역 초등학교 대

상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된 데 이어, 2012년에는 전남지역 초,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DMZ 통일캠프는 통일관련 체험학습 기회가 거의 없는 광주전남 청소년들이 직접 분단의 현장이자 통일의 시작인 DMZ 지역을 답사하면서, 분단의 아픔과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의 중요성을 느껴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에는 2박3일 프로그램으로 5회의 통일캠프를 진행하였고, 총 23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분단현장 답사, 철책걷기, 통일수업과 토론회, 통일골든벨 등을 통해 미래 통일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공헌을 실현하는 한민족리사이클링

우리민족은 한민족어린이 교육지원사업 기금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헌교과서 수집운동에 이어 2012년부터 보안문서 현장파쇄 사업단인 한민족리사이클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안문서 현장파쇄는 개인정보와 기업보안 문서를 파쇄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즉시 파쇄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서파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조치이자, 종이를 재활용하는 친환경사업이며, 수익금은 한민족어린이 지원 사업에 환원하는 나눔사업입니다. 문서파쇄를 통해 한민족어린이 교육지원에 참여하실 기업, 기관, 단체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족 리사이클링 사업 현장 모습

부산경남
우리민족

불어라! 평화와 통일의 바람~

제2회 부산시민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

2011년 <부산지역 대북 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부산북민협)> 단체들과 함께 개최했던 '부산시민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를 연중행사로 기획하여 2012년에도 제2회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해 해주시고, 여러 자원활동가분들이 행사진행을 열심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모두 'LET'S RETURN TO 6.15' 구호가 새겨진 기념티를 맞춰 입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바라면서 한 걸음씩 걸어나갔습니다.

저탄소 녹색운동 학교 헌책 수거 재활용 사업

: 부산시교육청 장학금 전달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09년부터 부산시교육청 후원으로 '저탄소 녹색운동 학교 헌책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이 헌책 수거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부산시교육청에 교육기부하기로 하고 장학금전달식을 갖고, 부산시교육청이 선정한 부산지역 고등학교 10곳에 불우학생 급식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녘어린이 지원과 더불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민중의 벗 김영수 목사님 10주기 추모의 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전신인 '작은이를 생각

하는 사람들(이하 작은이들)'의 초대 상임대표였던 김영수 목사님께서 소천하신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인사 중 한 분이셨던 김영수 목사님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2012년 5월 초 30여개 단체들이 '김영수 목사 10주기 추모의 밤 추진위원회(실행위원장 부산우리민족 리인수 사무총장)를 결성하고, 두 달여 기간을 준비하여 8월 21일 저녁, 부산 민주공원 대강당에서 '민중의 벗, 김영수 목사님 10주기 추모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결성된 '김영수 목사 추모의 밤 추진위원회'는 향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김영수 목사님 추모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제8회 한겨레-부산시 국제심포지엄

: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리인수 사무총장이 이틀간 행사 진행 사회를 맡았습니다. 지역의 여러 인사들도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 하였습니다.



김영수 목사 추모의 밤 토크콘서트

미국달라스 우리민족

대륙을 넘는 사랑의 실천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는 사랑 운동'을 모토로 1997년 11월, 55명의 발기인이 모여 창립되었습니다. 창립초기 이모작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으로 밀가루, 강냉이 등 식량과 아동용 신발, 자전거, 지붕재 지원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15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 해 두번 북한에 강냉이를 전달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강냉이 60톤(화차 한칸 분량)씩 120톤을 중국 단둥 지역에서 구입, 평양 인근의 서포역을 통해 보냈고 이 곡식을 평양 인근의 공장에서 국수로 만들어 원산에 있는 세 고아원과 원산 도립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5월경에 윤 유중 목사(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가 방북했고 두번째 강냉이 전달(11월) 때에는 본회 고문인 박영남 장로도 동행해서 원산을 방문했습니다.

2012년에도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이어졌으며 매달 첫째 주일 저녁 5시 30분에 달라스에 있는 빛내리 교회 1층 어린이 예배실에서 인근의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달라스 지역에 7개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베일러 병원시스템(Baylor Hospital System)

의 협조를 받아 의료 장비와 어린이 영양제, 의약품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적은 롱비치에 있는 한국 해운사가 맡아 주었고 운송비 \$8,000은 달라스에 있는 Park Cities Baptist Church가 부담해 주었습니다.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0년 북한 중앙 정부와 식량, 의료, 교육 지원 등 세 분야의 지원을 위한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하고 현재는 강원도 원산 지역에 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7년 11월에 결성되었고 지금까지 매년 약 \$30,000 정도를 모금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미국 국제청의 승인으로 현금하는 기관과 개인들이 세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 원산 방문 및 현지 고아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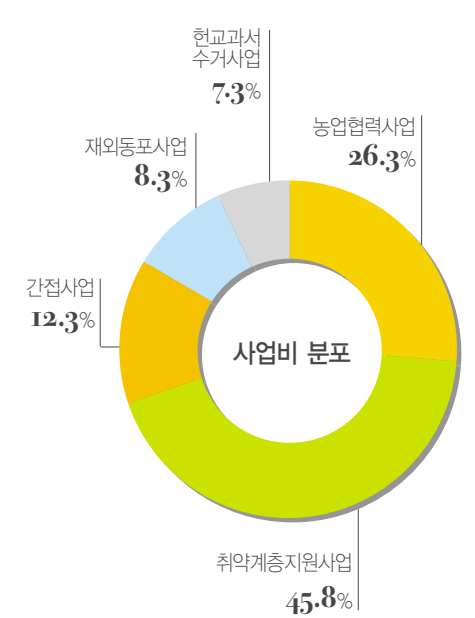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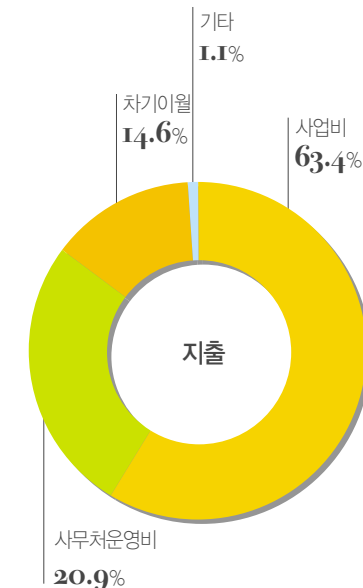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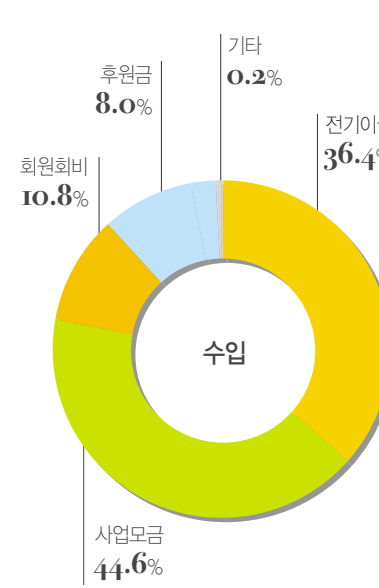


방북 및 지원 성과 발표에 대한 미국 현지 한국인론 보도

2012 결산보고

수입	(단위 : 원)
항목	금액
전기이월	617,134,270
모금	757,257,816
농업축산협력사업	0
보건의료협력사업	35,648,827
취약계층지원사업	365,607,348
재외동포지원사업	101,476,441
한교과서수거사업	152,458,800
일반모금	102,066,400
운영비	318,523,920
회원회비	182,552,575
후원금	135,971,345
기타수입	4,046,859
합계	1,696,962,865

지출	(단위 : 원)
항목	금액
사업비	1,075,822,900
농업축산협력사업비	283,074,548
보건의료협력사업비	0
취약계층지원사업비	493,469,314
재외동포지원사업비	89,116,410
한교과서수거사업	78,372,583
간접사업비(정책연구사업비 등)	131,790,045
운영비	354,722,564
기타지출	18,813,369
차기이월	247,604,032
합계	1,696,962,86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하는 사람들

고문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
박경호 (대한성공회 대주교)
서영훈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공동대표

영 담 (불교방송 이사장 / 석왕사 주지)
윤여두 (동양물산기업주 부회장)
이일영 (R.I Korea 상임의장)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공동대표

고희선 (국회의원 / ㈜농우바이오 회장)
김문찬 (법무법인 서정 고문)
김병준 (양천사회복지법인 대표)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외과 교수)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박남수 (동학민족통일회 상임대표)
박원철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준영 (을지의대 총장)
손진우 (삼용화성 회장)
원혜영 (국회의원)
윤정현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이용선 (양천 나눔과 동행 대표)
전정희 (농수축산신문사 대표)
정 여 (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정의화 (국회의원 /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
천정배 (前 국회의원 / 동북아전략연구원 이사장)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감사

김영환 (공인회계사 / 양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전 성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신 대표)

자문위원

김동수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한 (성공회대 외래교수, 법과 인권연구소 소장)
김윤호 (백두산문인회 회장)
김종진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
박남용 (사람인 치과 원장)
박상욱 (광양 버스터미널 회장, 전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북한법연구회 회장)
장순천 (포도엔지니어링 대표, 환경기술사)

평화나눔센터

소 장 이종무

연구위원 강동완 (동아대 교수)
김동진 (한국신학연구소 연구원)
김태균 (서울대 교수)
문경연 (고려대 연구교수)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

홍상영 사무국장
서명희 부장
이예정 부장
손종도 부장
이봉철 부장
황재성 부장
이영재 간사

광주전남지부

고문

안종일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조비오 (아리랑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이사장

윤정현 (광주리더십센터 이사장, 아이안과 원장)

공동대표

임승진 (치과원장)
정석주 (그린장례식장주 사장)

사무처

김영삼 사무처장
이재봉 사업국장
박효정 간사

부산경남지부

상임대표

정 여 (범어사 직전 주지)

상임공동대표

이 영 (前 부산시의회 의장, 現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 대표이사)

공동대표

조기종 (조기종 치과의원)
주병호
차상조 (로덴 치과의원)

사무처

리인수 사무총장
정수진 홍보실장


러시아볼고그라드 사무소

볼고그라드 사무소

심이리나 회장
이봉철 한글학교 교장


여러분의 지지와 충고와 나눔을 기다립니다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감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거룩한 부담을
짊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순 복




통일이 되었을 때 조금은
덜 미안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신 우리민족에
감사드리며, 통일된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의 초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길 미 성



동포 아이들아~~
빵 먹고 힘내서 통일이 될 때까지
희망 말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해~
파이팅~~!!

김 덕 훈




하나원에서 근무하는 손정아입니다.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민족이 서로돕는 일에
더 많이 후원하겠습니다.

손 정 아



북한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우리민족 파이팅입니다.
올해도 서로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 정 원



북한의 아이들아,
우리 딸과 너희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기도할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렴!

강 민 수

이영내 이영동 이영선 이영수 이영숙 이영옥 이영주 이영철 이영호 이영환 이영훈 이영휘 이옥순 이용균 이용범 이용선 이용성 이용
 암 이용연 이용찬 이우영 이운식 이운학 이원민 이원욱 이유열 이윤관 이윤상 이은 이은경 이은혜 이은희 이용세 이인덕 이인수 이일
 선 이일양 이일영 이일영 이재원 이재학 이재현(밝은세상) 이재희 이정미 이정민 이정세 이정수 이정숙 이정식 이정엽 이정주 이정철
 이정훈 이정희 이재현 이종권 이종명 이종무 이종문 이종민 이종민 이종석 이종섭 이종성 이종안 이종주 이종학 이종호 이주
 철 이주형 이준동 이준희 이지나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용 이지운 이지원 이지은 이지하 이진권 이진탁 이찬우 이찬웅 이창용 이
 창재 이채경 이채린 이천권 이천환 이청희 이춘삼 이충목 이태주 이필원 이학수 이한결 이한솔 이한택 이항 이항미 이항주 이현경 이
 현석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우 이현재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현진 이혜경 이혜란 이혜옥 이혜옥 이혜원 이혜정 이호영 이홍우
 이홍준 이항복 이효식 이희원 이희종 이희택 임강택 임건재 임광호 임금숙 임기윤 임갑실 임동권 임동선 임문희 임미자 임병수 임병
 철 임선영 임세진 임영수 임옥현 임완민 임원빈 임인기 임장원 임재민 임재일 임정애 임지훈 임창영 임춘수 임현직 임형주 장길수 장
 단비 장문호 장민한 장범식 장병호 장보형 장사익 장선영 장수필 장순천 장영준 장용성 장용훈 장원석 장유경 장윤진 장은하 장재영
 장주혜 장준호 장지식 장춘용 장형수 장환빈 전극재 전기철 전미란 전범권 전병은 전병태 전병희 전성관 전애숙 전영미 전영일 전영
 일 전용운 전일수 전정수 전정희 전중수 전재남 전총수 전향미 전해린 전훈 정경옥 정경훈 정계현 정광례 정광수 정극철 정근 정근영
 정금나 정기석 정기운 정동혁 정두음 정란아 정명준 정명환 정미선 정미영 정미혜 정민 정병현 정삼모 정상원 정석만 정성경 정성호
 정성훈 정성희 정수근 정수범 정수준 정수진 정수현 정수희 정순지 정승해 정아름 정연실(송경평) 정연웅 정연정 정연준 정영철 정영
 희 정옥식 정은미 정인성 정인준 정재민 정재욱 정재원 정재환 정정욱 정정태 정종원 정중렬 정지영 정지원 정지은 정지현 정지혜 정
 진영 정찬광 정창수 정천우 정태규 정태은 정한성 정해렬 정해문 정현근 정혜숙 정혜인 정홍상 정희범 정희인 정효진 정후진 정홍귀
 제해성 제해준 조갑식 조기봉.세운 조길영 조남숙 조대엽 조두연 조두형 조만용 조매경 조민지 조봉현 조석희 조선아 조선영 조성숙
 조성탁 조성호 조성희 조승훈 조승희 조영상 조영석 조영식 조용균 조용원 조용진 조우영 조윤 조윤곤 조은미 조은희 조응원 조재호
 조정순 조정아 조주원 조준혁 조지현 조진영 조창식 조태현 조한민 조한범 조해기 조현 조현영 조현호 조형준 조형준 주관수 주로미
 주송순 주우현 주원섭 주재열 주현기 주혜영 주희옥 지선경 지준호 지태석 진관스님 진상호 진성두 진양숙 차규화 차현애 차형철 차
 귀선 채병철 채보미 채송화 채우혁 채현숙 천경배 천봉실 천정배 최경미 최경인 최광림 최귀철 최규원 최근혁 최기수 최기천 최문석
 최병륜 최병희 최사라 최성범 최세문 최수진 최숙희 최순옥 최승호 최승호 최양옥 최어진 최영림 최영신 최영자 최영희 최용식 최우
 정 최유복 최윤식 최윤실 최을규 최의찬 최인규 최인엽 최재근 최재문 최재원 최재천 최정숙 최정에 최종철 최주리 최준수 최준혁 최
 진욱 최진원 최창윤 최철영 최태자 최태희 최필선 최현주 최희송 최희은 추진해 탁도웅 탁병섭 탁종녀 푸른초장교회 하성환 하세연
 하승창 하정현 한강아 한거래통일문화재단 한국화학연구원 한나영 한복희 한다솔 한다현 한덕섭 한덕섭 한덕희 한동학 한동휘 한동
 희 한두찬 한두희 한상균 한상만 한상철 한서정 한성희 한승엽 한영숙 한예린 한원택 한윤구 한은혜 한인숙 한인숙 한정화 한지섭 한
 진욱 한창균 한창현 한청택 한하늬 합기문 함영준 함용운 허경기 허귀석 허남순 허민석 허설 허원종 허은이 허응태 허인웅 허정 허정
 윤 허준웅 현관송 현윤식 현윤실 현윤애 현종스님 현종윤 현홍준 호서중3-4 호영진 홍구표 홍기호 홍란희 홍란희.최은서 홍면기 홍
 미옥 홍상운 홍석 홍성조 홍성각 홍성건 홍성근 홍성복 홍숙희 홍유진 홍윤정 홍제표 홍준석 홍진표 홍창영 홍현기 홍현선 화신농건
 환성스님 환승스님 황계연 황권주 황금철 황대철 황명필 황병규 황성주 황승욱 황의중 황인선 황재성 황재용 황재택 황중철 황지중
 황창규 황현택

2012 사업보고서

차 례

2	감사의 글
4	사업지역
5	북한 방문 및 물자지원 현황
6	2012년 활동일지
8	대외협력 대북지원사업
10	현교과서 수거사업
12	중국 조선족소학교 지원사업
14	러시아 고려인 지원사업
16	국제 협력사업
18	정책 연구사업
19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20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
21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
22	미국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
23	2012년 사업결산
2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하는 사람들
25	후원자 인터뷰
26	후원자 명단 - 당신이 희망입니다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해 주세요!

후원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

사무처에 신청해 주시면 매달 26일 회원님의 통장에서 약정액이 출금됩니다.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

2.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휴대폰 후원

신용카드 후원

CMS 후원

3. 계좌이체 : 후원 계좌 (예금주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국민 001-01-2503-703

농협 386-01-004282

하나 10101-3849606

신한 140-002-997113

외환 028-22-05491-1

우리 111-04-133058

우체국 010017-01-006718

4. 지로 후원

지로번호 7641271

5. 해피빈, 싸이월드 후원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ksm7070.do>

싸이월드 <http://town.cyworld.com/ksmseoul>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전화 02)734-7070 팩스 02)734-8770
ksmseoul@ksm.or.kr / www.ksm.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협의지위 NGO 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 NGO, 평화NGO, 남북통합NGO입니다.